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새벽, 주 말씀>

1. 잘 깨닫는 자는 작은 것을 주어도 잊지 않고 깨닫는다. 잘 깨닫지 못하는 자는 큰 것을 받은 것만 기억하고 깨닫는다.
2.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람이 평생 동안 해도 못 하는 일을 해 주시고,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주셨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구해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귀하게 쓸 것을 주셨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을 해 주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활 속에서 잊지 말고 생각하며, 감사와 사랑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
3. 우리가 바라고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현실의 기쁨도, 희망도, 보람도 없었다. 문제들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얻지 못함으로 인해 아쉬워하고 곤고하게 살았을 것이다. 저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게 하셨으니, 받기 전의 때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써야 된다.
4.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무한대로 주셨다.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끝이 없다. 이를 깨닫고 늘 감사해라. 감사하고자 하는 만큼 감사할 것이 생각난다.
5.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게 해 주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신다.
6.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만 받아도, 그 사랑이 육 평

생, 영 영원까지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해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사람의 생각의 차원이 낮아서 깨닫지 못할 뿐이다.

7. 사람도 말을 해야 알듯이, 하나님도 말을 해야 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의논하고 대화해야 된다. 육신 일생 하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모시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체 되어 사는 삶이다.